

스포츠

8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아들 캐디 자청한 아빠 우즈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왼쪽)가 아들 찰리 우즈의 캐디를 자처했다. 우즈가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퍼타의 클럽에 아카데미에서 열린 주니어 골프대회에 출전한 아들의 골프백을 메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 타이거 우즈 인스타그램

나달·페더러, 팔 걷고 나섰다 호주 산불돕기 자선대회 출동

호주 최악의 자연재해라 불리는 최근 산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테니스 스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은 피해 지역만 4만9000km²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재앙 수준의 호주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정부와 전 세계 구호 단체가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에 호주와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는 테니스 스타들이 직접 지원에 나선다. 호주는 세계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이 매년 열리는 곳이다. 산불로 인해 올해 개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직위원회는 예정대로 20일부터 대회를 진행한다.

조직위는 "지붕을 닫고 경기할 수 있는 코트가 3개 있기 때문에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실시간으로 공기의 질을 점검해 선수와 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출전을 앞둔 테니스 스타들은 개막 5일 전인 15일에 산불 돕기 자선대회인 '렐리 포 릴리프(The Rally for Relief)'에 출전한다. 라파엘 나달(스페인·세계랭킹1위), 로저 페더러(스위스·3위) 등 톱 랭커들이 출전해 입장권 매출을 모두 산불 재해 지역을 돕는 데 쓴다. 대회는 호주오픈 메인코트 경기가 열리는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진행된다. 정은상 기자

KBL, 스포츠브랜드 '포워드'와 후원계약

KBL이 국내 멀티 스포츠 브랜드 '포워드'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올스타전' 공식 용품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축구 브랜드로 알려진 '포워드'는 KBL과의 계약을 통해 프로농구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 '포워드'의 모기업은 스포츠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인 HOPITCH STUDIO로 올스타전 공식 엠블럼 디자인을 맡았다. KBL과 포워드는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의류와 MD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올스타전 유니폼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판매되며, 사전 구매 한 팬은 올스타전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올스타전 유니폼 및 관련 MD 상품들은 16일 '포워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차 발매될 예정이고, 올스타전 당일 경기장에서도 판매된다. 올스타전은 19일 오후 3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마음껏 즐긴 WKBL, 이젠 순위전쟁

3~6위 2게임차...봄농구 향한 대혼전 예고

1위 KB스타즈-2위 우리銀 반게임차 집중도 높아져 순위싸움 더 치열할듯
15일 재개...25일부터 A매치 휴식기



여자프로농구는 12일 부산 BNK센터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1박2일 동안 6개 구단 올스타 선수들은 함께 부산을 오가고 팬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올스타전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한 청주 KB스타즈의 박지수(21)는 "소풍가는 기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기 승패를 떠나 다른 팀 선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박지수의 말처럼 올스타전은 선수들에게 잠시나마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스타전에서 마음껏 놀고 즐긴 여자프로농구는 15일 인천 신한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6개 구단은 일주일 간의 올스타 휴식기를 통해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팀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남자프로농구(KBL) 못지않게 여자프로농구(WKBL)도 혼전의 양상이다. 상위권, 중위권 경쟁이 모두 치열하다. 1위 KB스타즈



'올스타 부산 나들이'를 마친 여자프로농구가 15일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일주일의 올스타 브레이크를 전력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한 6개 구단의 '봄농구'를 향한 여정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부산 BNK센터에서 펼쳐진 올스타전에서 블루스타를 108-101로 꺾은 핑크스타 선수들의 세리머니 장면. 부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13승5패)와 2위 아산 우리은행(12승5패) 간의 승차는 불과 반 게임차다. 또 3위 부천 KEB하나은행(8승10패)부터 6위 부산 BNK썬(6승12패)까지의 승차는 2경기다. KEB하나은행, 신한은행(7승10패·4위), 삼성생명(7승11패·5위), BNK의 경우, 한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순위표가 요동치는 상황이다. 플레이오프(PO) 진출자격은 정규리그 3위 팀까지만 주어진다.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이 1, 2위를 나눠 갖고 4개 팀이 PO 진출을 위한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다. 한 경기에 대한 중요성, 집중도가 높아지는 만큼 후반기 순위 싸움

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자농구대표팀의 2020 도쿄올림픽 진출 여부가 걸린 국제농구연맹(FIBA) 올림픽 예선 토너먼트(중국 포산) 일정으로 인한 A매치 휴식기(1월 25일~2월 15일)가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SK 헤인즈(위).

불혹 앞두고 시즌 1호 트리플더블...가치 증명한 헤인즈

자밀 워니에 공격 1옵션 내주고도
KT전 24분간 13점·12R·14AS

서울 SK의 베테랑 포워드 애런 헤인즈(39·199cm)는 국내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장수 외인이다. KBL에서 자신의 12번째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헤인즈는 올 시즌, 예년에 비해 역량이 다소 축소됐다. 소속팀 SK가 자밀 워니(26·200cm)를 새로운 메인 옵션으로 선택하면서 보조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13일까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32경기에서 평균 12분12초를 뛰면서 9.4점·4.2리바운드·2.2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2008~2009시즌 KBL 데뷔 이래 가장 적은 출전시간이다. 출전 시간이 줄면서 자

연스럽게 기록도 하락했다. 출전시간이 줄어든 탓에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팀이 부진에 빠졌던 3라운드 말~4라운드 초반에는 헤인즈도 완전히 경기 리듬을 잃은 듯 했다. 지난달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0일 전주 KCC와의 경기까지 8경기 연속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다. 지난달 29일 원주 DB와의 경기에서는 4분49초 동안만 출전해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했다. 출전시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코트에서 뛰는 동안만큼은 볼 소유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았다. 이와 함께 주위에서는 "SK가 이제 헤인즈에게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헤인즈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다. 12일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24분45초만 뛰

고도 13점·12리바운드·14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개인통산7호)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 시즌 10개 구단 전 선수를 통틀어 첫 트리플 더블이었다. SK는 105-65로 크게 이겼다. 무엇보다 돋보인 부분은 어시스트다. 짧은 시간 득점을 위해 무리한 공격을 일삼다가 흐름을 놓치기보다는 동료들에게 득점 찬스를 만드는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 SK 문정은 감독(49)은 "빠르게 공격을 치고 나가 외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 오랜만에 자기 역할을 잘 해냈다"고 헤인즈의 활약을 반겼다. 3연패 후 2연승을 거두면서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SK에게 베테랑 헤인즈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이나 다름없다. 정지욱 기자

NBA처럼 파울 콜도 확인...KBL, 챌린지 도입 검토

거의 모든 상황 리부 가능 '승패 영향' 작전타임 요청때만 매경기 1회 한정

KBL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챌린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존 비디오판독을 확대해 파울 콜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프로농구 한 관계자는 13일 "KBL이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시행하고 있는 챌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게 현재 진행 중인 정규리그에 적용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된다"고 밝혔다. KBL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요구가 있었다.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KBL 이사회는 이달 20일 전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NBA는 2019~2020시즌부터 챌린지



KBL이 파울 콜에 대한 확인까지 가능한 새 비디오판독 '챌린지'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승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제공 | KBL

를 도입했다. 각 팀은 매 경기 딱 한 차례 챌린지를 할 수 있다. 성공과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번만 요청이 가능하다. 불이 데드된 상황에서 작전타임을

요청한 뒤 챌린지를 신청해야 한다. 작전타임이 남지 않은 팀은 챌린지를 활용할 수 없다. 챌린지를 위해 작전타임 한 번을 소진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한다. 벤치가 챌린지를 신청하면 비디오 리뷰를 통해 직전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정이 내려진다. 파울 콜을 포함해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다. 결과에 따라 이미 내려진 어떤 판정도 수정될 수 있다. NBA에서는 챌린지를 통해 승부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왔다. 공격자 파울 혹은 수비자 파울 콜에 대한 수정도 이뤄졌다. 볼 소유권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나오면 점프볼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KBL도 NBA와 비슷한 방식의 챌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KBL은 NBA와

비교하면 작전타임 횟수가 한 차례 더 적다. NBA 방식으로 도입하면 각 구단 벤치는 부담을 감수하고 챌린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정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판정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NBA처럼 단일 경기 40분 동안 내내 무조건 한 차례의 챌린지를 활용하게 될지, 4쿼터 종료 2분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요청할 수 있게 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전히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즌 내 챌린지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KBL이 어떤 방식의 챌린지 방식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